



부활 증언하기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교리신학원 원장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한 사도들은 그분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리고, 베드로는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에서까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을 믿는 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째 독서는 그 후의 (사도들에 의한) 표징과 이적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앞선 베드로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베드로의 (믿기 어려운!) 증언이 그 표징과 이적을 통해 믿을만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오늘의 복음이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에 대해 가르쳤지만, 토마스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바로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감동적 탄성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이제부터 예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보다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그것을 체험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축복선언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고, 세상은 예수 부활을 통해 선포된 새 생명을 꿈꾸게 됩니다. 오늘의 둘째 독서에서 묵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자신에 대해 소개하면서 자신도 역시 (묵시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을 분명히 합니다. 묵시록이 전하는 증언은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은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편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것은 부활 사건이 완성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묵시록의 종말이란 부활을 통해 선포된 새 생명이 실현될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교회를 통해 전승되어 온 부활에 대한 증언은 교회 전례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그 전례에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새 생명과 새로운 세상의 꿈을 간직해온 교회가 그 모든 희망의 출발점인 부활을 기억하는 방법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작은 촛불 하나를 밝히며, 우렁찬 함성이 아니라 나지막한 부활 찬송과 함께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들은 부활에 대한 증언을 이어갑니다. 작지만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나지막하지만 희망 가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통해 세상은 올해도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곡동성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0

도곡동성당(구 도곡2동성당)은 2000년 순교자 성월인 9월 ‘이름 모를 순교자’를 주보로 모시고 대치동성당에서 분당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초대 주임신부가 부임해 2000년 9월에 첫 미사를 봉헌했고, 설립 당시 본당의 신자 수는 1,875명이었습니다. 2002년 2월에는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로부터 수녀 3명이 파견되었습니다. 도곡동성당은 현 주소지인 건물의 1층 상가를 분양받아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건물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교리실과 회합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장동성당 도곡동성당 삼성동성당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